

[사회]

보상금·생계자금 지연에 복구 못하고 생활 막막

전남시 피해농가 '고통의 나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가금류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금류 농가들이 피해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지난 4월부터 22개 농장에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가 집단폐사해 이중 20개 농장은 저병원성 AI 또는 일반 질병으로 확인됐으나 2개 농가는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75만마리의 닭과 오리, 130만개의

달걀이 살처분이나 매몰 처분됐다. 이에 따른 농가 피해액은 6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 살처분 보상금 66억원 가운데 35%인 23억원만 피해 농가에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43억원은 ▲사육농가와 사육 위탁 업체와의 지원금 배분 미합의 ▲일선 시·군의 조사 지연 등으로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18개 피해 농가에 11억1천만원을 지급할 생계안정자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가당 650만원꼴로 모두 1억1천만원만 지급됐다.

더욱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

병한 영암군 신북면 일대의 9개 농가는 발병 책임을 물어 생계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자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피해농가 가운데 사육농가와 사육 업체와의 보상금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모든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딸기가 꿀맛이에요” 광주시 북구 각화동 성림 숲속어린이집 어린이들이 20일 북구 건국동 용담마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직접 수확한 뒤 딸기를 한입 베어 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돌풍 조심 5월 21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면 대체로 맑겠다. (음 4월 17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12~27℃
주요	맑음	12~23℃
포항	맑음	14~24℃
서울	맑음	12~24℃
부산	맑음	9~27℃
대구	맑음	10~25℃
대전	맑음	9~26℃
전주	맑음	10~27℃
제주	맑음	9~27℃
충청	맑음	10~24℃
강원	맑음	9~24℃
경상	맑음	11~26℃
충남	맑음	8~26℃
충북	맑음	8~26℃
전북	맑음	11~21℃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2:56 썰물 < 08:09
목포 밀물 < 14:36 썰물 < 19:55
여수 밀물 < 09:24 썰물 < 03:40
여수 밀물 < 22:06 썰물 < 15:21

▲해돋이 05:24 ▲해질 19:34 ▲달돋이 20:58 ▲달질 05: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씨						
최저/최고	14/28	14/27	16/25	14/27	14/28	14/28

일부 사립대 논술 영어 지문 출제

정부의 대입자율화 방침에 따라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된 가운데 일부 사립대들이 2009학년도 수시 논술에서 영어 지문을 출제하기로 했다.

20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측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안에 수시 2학기 논술고사에서 영어 제시문을 이용한 문제를 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열별로 3~4문항 정도 출제하면서 각 문제별로 주어지는 제시문 3~4개 중 1개 정도를 영어 지문으로 출제할 방침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고교 1학년 영어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할 예정이며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면 독해가 가능하고 문제 풀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지난 2004년 7월 실시된 수시1학기 외대 프론트어 전형 논술고사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한 찬반 입장이 담긴 4가지 영문 제시문을 주고 수험생의 입장을 논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경희대도 올해 수시모집의 인문계 논술고사에서 영어 제시문을 출제할 방침으로 오는 25일 실시되는 모의 논술고사에서부터 영어 제시문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늘 전남대 총장 선거

터치스크린 전자 투·개표

21일 실시되는 전남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터치스크린 전자 투·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 투·개표 장소는 광주용봉캠퍼스 국제회의동 제1세미나실, 여수둔덕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 광주학동캠퍼스 의과대학 교수회의실, 화산병원 5층 부속실 등 모두 4군데에 설치된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차 투표가 실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자 2명에 대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결선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이번 제18대 전남대 총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박영호(58·경영대학 경영학부)·이병택(50·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김운수(58·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김현태(56·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이상 기호순) 교수 등 4명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수산단 정전 피해 120억원

지난 3일 발생한 정전사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전체 피해액은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낙뢰 충격 보호장치 2개가 파손된 한화석유화학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 낙뢰 충격 보호장치 보수비용에 따른 손실액이 64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여천NCC 45억원, 대림산업 9억원, 코오롱유화 4억원, 린플비안

케이컬즈 코리아 1억원 등 이번 정전사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여수산단 입주 14개 업체의 전체 피해액이 약 1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관계자는 “입부 업체들이 매출액이 아닌 생산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 정전 피해액이 수백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했지만, 산단공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액은 약 123억원이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판사도 첫 성과급

경력·보직 따라 최고 180만원 차이

경력과 보직에 따라 고법부장 판사 미만 판사에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이가 18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직무성과급’ 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을 확정, 성과급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천248명에 게 19일 오후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가 없는 법관들에게 27일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을 지급한다. 감등급(전체 인원의 15%)은 지급기준액의 130%, 올등급(20%)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은 기준액의 80%, 정등급(30%)은 기준액의 70%를 받는다. /연합뉴스

올해 법관에게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성과급 예산은 모두 115억원(연간 1인 평균 500만원)이어서 첫 성과급 기준액은 약 290만원이고, 감등급은 380만원, 올등급 290만원, 병등급 230만원, 정등급은 200만원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업무에 개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과급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급’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등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나눴다.

감등급은 15년 이상 근무자, 올등급 10~15년, 병등급 5~10년, 정등급은 5년 미만 근무자가 해당되며, 경력·직무가 같은 사람에게 동일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연합뉴스

“녹차, 수면 무호흡증 치료 효과”

미국 대학 연구진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폴리페놀 성분이 무호흡증에 의한 수면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의학전문지 ‘호흡기-응급의학 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미 캔터키주 루이스 대학 연구진들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OSA)을 유발한 쥐들에게 녹차 물을 먹임으로써 뇌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학의 데이비드 고잘 박사는

림은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폴리페놀이 뇌세포의 산소 결핍을 완화시키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14일 동안 주기적으로 쥐들에게 산소 결핍을 유도하자 산화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지만 녹차 물을 먹은 쥐들에게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또 출구 찾지 등의 실험을 통해 녹차 물을 먹은 쥐들은 다른 쥐들에 비해 학습 및 기억력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하루 소주 3잔 노인 대장암 줄인다”

서울대 연구팀 조사
노인이 하루 평균 소주 3잔(알코올 24g)을 마시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색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술은 대장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팀이 65세 이상 노인 1만4천304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대장암 발생여부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

히려 적당한 음주는 대장암 발병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평균 약 소주 3잔 이하로 섭취한 사람은 대장암 위험도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0.62배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음주량이 비교적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장암 위험도가 낮은 것”이라며 “과도한 음주량은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기자 ahj@

www.dangyansang.com

당양산과

당양산과를 이끄는 당양산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문의전화 061-383-8283

심심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전통은세 060-700-3657